

나무와 미세먼지의 싸움

옥포초등학교

2학년 정다함

평화로운 식목일에
미세먼지가 쳐들어와서는
나무에게 시비를 건다.
“야, 나무. 나랑 싸우자!”

나무는 싫지만
“그래, 얼마든지!”

나무와 미세먼지는
친구들을 잔뜩 데려오고
규칙을 정한다.
“나무가 공격하면 우리가 공격하고
번갈아 공격하는 거야.”

나무 팀의 강물이
물바가지로 뿌리고
미세먼지 팀의 자동차가
매연을 내뿜는다.

공기가 공격하고
모래바람이 공격하고
태양, 황사, 강물, 안개.....

그러더니 또다시 식목일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자,
미세먼지가 사라진다.

미세먼지 팀이 행복하고,
나무 팀은 행복하고